

송 곳

흰 바탕에 녹색 꽃무늬가 놓인 원피스가 눈에 익었다. 머리 모양은 전과 달랐지만 나직한 어깨와 가는 목이 숙희가 분명했다.

숙인 고개로 하여 약간 동그랗게 굽은 등이 조심스러움과 나긋한 정감을 담고 있어 밍숭한 등이 이처럼 표정을 가질 수도 있다 는 것에 섭섭함조차 느껴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이내 맞방망이질을 하고 눈앞이 아득해 온다. 놀라움은 이상하리만큼 없다. 일찍 알고 있었던 것을 폭로하는 심정이었으나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것이다.

앞에 앉아 있는 사나이는 숙희보다 한두 살 아래로 보였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웃매무새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짙은 밤색 셔츠를 헐렁하게 입고 베이지빛 잠바를 걸쳤는데 소매단추가 떨어진 채다. 소매가 별렁별렁하는 팔을 테이블 위에 얹고 타는 듯한 눈으로 상대를 들여다보며 열심히 무엇인가 지껄이고 있다. 좀 경망스러워 보인다.

한참을 그러다가 몸을 펴고 의자등에 기대며 쟁긋 웃었다. 크게 웃지도 앉았는데 위아랫입술이 쉽게 갈라지고 쪽 고른 이가 어금니까지 보일 정도로 노출됐다. 웬지 잔인해 보인다.

못써……저도 모르게 고개를 흔드는데 숙희의 등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약간 활랑하게 입은 웃 위에 녹색 꽃들이 고즈넉기 피어 있는 느낌은 다시없이 연연하여 애처롭기조차 하다. 공연히 눈물이 펑 돌며 거기 더 머무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왜 하필이면 이 집을 택했을까. 친구가 원망스러웠다. 강변에 아주 멋있는 양식집이 생겼으니 오랜만에 비프스테잌이나 먹자고 약속한 집에서 뜻밖에 받은 충격이었다. 무엇보다도 숙희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다. 또 친구의 눈으로부터 숙희를 가려주어야만 했다.

장소를 잘못 알았나 보다고 못난 체하곤 그 집을 나와 근처를 서성거리는데 노랗게 칠한 택시에서 내리는 친구의 뚱뚱한 모습이 보였다. 요금을 치르는 그녀 옆에 다가서며 갓 도착한 체를 했다.

「난 또 내가 늦은 줄 알았지.」

「며 여긴 한국이야. 코리언 타임이 제격이지.」

친구는 언제나처럼 시원스럽다. 앞서 발을 뗄 때 놓는 것을 따라 걸으며 웬지 양식이 먹고 싶지 않다고 또 한번 못난 짓을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혀가 배타적이 되는구나. 한식이 아니면 속이 언짢지 뭐니.」

이때는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지만 만사 우리 옛것이 사는 데도 먹는 데도 편해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어느 한식집에서 식욕 없는 식사를 마치고 싱겁게 헤어졌는데 그것이 관객이 되어 열맛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골치가 빠개지는 것 같더니 설사와 구토가 번갈아 괴롭혔다. 누군가가 등을 쓸고 두들기기도 하고 찬 수건을 머리에 얹어 주고도 있었다.

「이제 그만큼 토했으니 편해질 거야. 한참 푹 자구 나면 돼.」

「그래두 열이 아직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 박박사한테 전화 걸어 봐라. 관객이 뚫리는 주사가 있겠지.」

머리맡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말이 아득히 들리는 것을 들으며 정신이 가물가물해 갔다.

그 가물한 세계에 스물을 얼마 넘지 않은 소복의 새댁이 작은 꽃나무싹 몇 개를 두 손으로 쌩들고 앉아 있다. 그 둘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 새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때는 귀만 가진 사람들이 되고 어느 때는 눈만 남기고 형체가 무너졌다. 그러다가 와글와글한 소리만이 남기도 했다. 그 모습들이 바뀔 때마다 새댁의 몸은 눈앞에서 떨리며 여위어 갔다. 그러는 중에도 손에 쌓든 꽃나무싹은 자꾸만 커가더니 마침니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꽃송이들이 너무 커져 여인은 그것들을 품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꽃들은 새들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여인은 절망적인 몸짓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들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만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 얼굴은 이미 주름져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자꾸 혀소리를 하는구먼요.」

먼 곳에서부터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 왔다.

「열이 많으셔서겠죠. 식중독입니다. 점심에 뭘 잡수셨지요?」

「글쎄 밖에서 먹구 들어왔는데 냉면을 먹었다던가.」

「아아 그게 나빴던 거예요. 요즘 냉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박박사의 선 듯한 음성이 들려 왔다.

「또 혀소리를 하실 만큼 열이 계속 높으시면 연락해 주시구.」

박박사는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혼미한 의식이 차라리 안온하여 반은 깨 상태였으나 눈을 감은 채 짐짓 노곤함에 잣아들어 갔다.

의식이 확실해진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머리맡 작은 장지문을 통하여 아침해가 화안히 비치고 있었다. 그때껏 옆에 앉아 있었던 듯한 구십이 넘은 시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드니? 몸이 불덩어리 같아서 정말 놀랐다. 이제 랜찮어?」

금새는 말이 나오지 않아 입만 이그러지는데,
 「온, 헛소리두. 너 혼미 중에 무서운 것 본 모양이지.」
 「뭐랬는데요?」

가까스로 모기만한 소리가 나왔다.

「글쎄 무언지 모를 소리두 마구 하구. 송곳, 송곳, 송곳을 하더니 허벅지 허벅지 하고 소릴 지르더구나.」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은 것 같아 심한 현기가 왔다. 이윽고 그 혼미한 의식 속에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소복입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서연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송곳에 대한 일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환각이라고 불리울 의식의 심층의 특수 공간에서 벌어지던 그 극에 송곳도 허벅지도 참가했었었는지 모른다. 기억으로 새겨지기 전에 외침이 앞질러 나오고 동시에 모든 조명이 꺼져 버린 것인가.

몸이 다시 오싹해 왔다. 몇 마디의 낱말, 두어 조각의 하찮은 파편만으로 홀륭하게 전체를 복원(復元)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식이나 기억의 세계에 있어 문틈으로 새어드는 한가닥 헛별 줄기가 잃어버렸던, 혹은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씻어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송곳이 허벅지라는 말과 함께 등장했다면 옛날 그 어느 때 벌어졌던 끔찍하고 애절한 그 극은 조명이 꺼진 의식의 무대에서도 그대로 재연이 되었을 것이었다.

열은 다시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짜장 환자같이 자리에 누워 버린 것은 그 후부터다. 오한으로 몸이 오싹거려 차렵이불에 솜이불을 얹어 덮었던 것이 누비이불로 바뀌어 있었다. 안방에 이처럼 오래 누워 있어 본 일이 일찌기 없었던 까닭인지 이 방을 거쳐삼은 지도 오래전만 낯선 방에 누워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보니 몇십 년을 살면서 눈길이 가지 않는 곳이 집 속에조차도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새삼스러운 눈으로 웃목 뒤곁으로 난 문 밖을 내다본다. 발을 치기에는 아직 이른 계절이지만 정남으로 앓은 집이라 좀더 지나면 석양해가 지겨우리라. 그러나 아직은 초여름 헛별에 녹색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싱그럽기조차 하다. 나릿한 몸과 혼흔한 정신

상태 탓인지 모든 것이 회상 속의 정경 같아 이 나이에 울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더우기 뒤곁은 정답다. 젊었을 때는 집채를 가운데로 쪽 돌린 공간이 쓸모없이 자투라기만 만든 것 같아 미련하게도 집을 앓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까닭없이 비어던진 것 같은 이 뒤곁 터가 이렇게도 정다울까.

뒷담 밖은 바로 행길이다. 십 년 전만 해도 공터였었는데 새길이 나고 길 건너편에는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도 길넓이만큼은 건너편 집들이 물러나 있어 담 위로는 파아란 하늘만 보이고 아직은 차 왕래가 많지 않아 담에 의지하듯 서 있는 대추나무 잎은 자르르 윤이 흐른다. 대추나무 밑에는 나무 그늘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면서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고 나무 밑은 온통 옥잠화밭을 이루고 있다. 그 옆이 장독간이다. 묵은 살림이다. 크고 작은 장독이 엄청나게 많다. 모두 깨끗하게 손질이 간 것은 구십이 넘어도 정정하고 칠칠한 시어머니 밑에서 단련된 평산댁 덕택이다.

장독간이 끝나면 땅은 바짝 좁아져서 그야말로 자투라기가 되어 집채를 에워돈다.

약간 규모가 큰 편인 대개의 옛 서울집이 그렇듯 집은 모자로 앉았다. 본채는 안방 대청월방이 남향으로 되어 있고 안방에 이어 부엌 반비간이 있고 다음이 꽤 넓은 아랫방이다. 모자의 한획을 이루며 사랑이 있다. 지붕은 이어졌는데 등을 돌려 안마당으로는 창 하나 나지 않은 콕 닥힌 벽에 색벽돌로 짐장생을 새겼다. 시아버님의 생존시만 해도 사랑으로 가려면 신발을 신고 중문 옆에 난 작은 월문을 통해야 했다. 비나 오는 날이면 속절없이 비를 맞아야 했고 눈이 쌓였을 때는 미끄러지기가 일쑤였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사랑마당에 붙은 일각문 앞에서 기척을 하고 드나든다.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이후고 그리 넓지 않은 안마당 아래에 있는 행랑방 광방 혀간 뒷간이 붙은 아래채가 모자의 마지막 획이 된다.

사랑채에 병원을 차린 것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전해다. 사

랑과 안채 사이의 벽을 일부 헐고 통로를 만든 것도 그때였다.
벌써 이십 년이 가까와 온다.

새삼 누누이 집짜임새를 따진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다. 사는 데 쫓겨 집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지난날들이 스스로 안스러워 모처럼 되돌아보려는 세월을 집에서부터 열어보려 함이다.

남편은 양가독신(兩家獨身)이었다. 즉 손이 없는 종가를 낳기 전부터 잊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 후 딸만 둘 낳고 손이 끊겼다. 다른 여자를 보아 기출을 얻어 서자승적(庶子承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지만 승적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족 집안에서 딸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머리를 저으셨단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결국 서자를 남의 집 서녀로 여워 집안을 좌족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고 비장한 결의를 한 것이라 한다. 아들에게서 얻은 둘째 손자로 한 대를 건너뛰어 작은 집을 잊게 하기로 결정한 시아버지는 나름대로 최선책을 세웠다고 흡족해 했었다.

일찍 개화하여 동경 유학까지 하면서 가문에 관한한 고루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분이었다.

따라서 며느리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생산을 잘해야 했다. 젊은 나이에 귀염성스러운 구석 하나없이 건강만이 취할 점이던 사람이 이 반듯한 집안의 자랑이던 수재로 이름 높은 외아들의 아내로 뽑혔던 것도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첫 아들을 어렵잖게 낳아 바쳤다. 그렇다. 낳아 바쳤다는 말밖에 이 경우에는 쓰일 말이 없다. 이어 한 해를 뛰어 딸을 낳고 소위 한피에 또 임신을 했을 때 6. 25동란이 터진 것이다.

남편은 촉망을 받는 외과의로 S대에 봉직하고 있었다. 피난을 가지 못한 데에는 여러가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하필이면 그 다급할 때 바로 유월 이십 칠 일날 새벽에 생사를 헤매는 난산 끝에 아들을 난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난중에서도 시부모님은 당신들의 제사지낼 놈이 생겼다

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서는 거나 낳는 거나 그렇게 쉽게 하던 사람이 그애 때 따라 어려워, 낳을 때도 기지사경을 헤맸으며 산욕도 깨끗치 못해 열이 오르내렸다.

한편 남편은 그날로 색출되어 나가고 어찌다가나 얼굴을 보였다. 전쟁과 외파의, 그의 피로와 피로움을 역시 의사인 아내가 어찌 몰랐겠으랴. 그러면서 산욕열을 앓고 있는 아내는 무력한 환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공포와 불안과 기아 속의 괴롭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십여 일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찾아 쇠약한 몸으로 S대부속 병원을 찾은 아내의 눈앞에 벌어졌던 광경은 파괴와 황폐와 혼란의 아수라장이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공기마저가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죽음의 정적 속에는 교통과 공포와 신음과 절규와 포호와 가공할 각종 무기들이 발생하는 굉음까지도 응축되어 있는 것같이 들리지 않은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음향이 느껴졌다. 그래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은 집 대문이 열린 연후였으니 의지력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북쪽으로 끌려 갔다고도 하고 탈출하려다가 사살되었으리라고도 했다. 얼마 사이에 백발이 된 시부모님들은 미친 듯이 아들의 소식을 찾고 다녔다. 무당이 집을 들락거리고 장독간 정갈한 바닥 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가 받쳐지고 그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는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두 여인——생모와 양모는 비탄에 잠기면서도, 끝내 포기를 하지 않았다. 아들은 결코 죽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죽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를 우리 집안을 어떡하고 그가 죽어——그런 비논리적인 확신은 신앙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이 집안에는 기다리는 아내가 두 사람이 된 것이다.

남편은 종가를 이었다고 하나 양부인 백부의 얼굴을 본 일이 없다.

「신해년 봄이었지. 저녁상에 미나리강회를 올렸던 생각이 또렷 하거던. 행랑 쪽이 소란하더니 부뜰아범이 안채로 뛰어들어 오는 테 왜놈들은 아범보다 먼저 댓글에 올라와 있더라. 너희 백부께 선 며칠 만에 들어오셔서 어머님과 겸상으로 진지를 들구 기셨어. 암, 부자 겸상은 못 하지만 모자 겸상 조손 겸상은 할 수 있구말고.」

시어머님(백모님이 되시지만)은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 놀라우셨다. 시어머님이 말하는 신해년은 1911년 즉 합병 이듬해를 가리킨다. 부인보다 두 살 손아래인 백부님은 스물 한 살의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청년이었다. 섬쩍할 만큼 수려한 미남이었다고 한다.

열 다섯 때 백모님을 아내로 맞고 일년이 못 가서 조부님이 하세하시니 새사람 들어와 삼년 안의 큰 변이라 까닭없이 백모님은 죄인이 되어야 했다. 아직도 인습의 뿌리가 깊을 때라 일진보아 내침(內寢)을 시키는 사대부가의 법도대로 낭군 얼굴 익힐 만큼도 한방에서 함께 지낸 일이 없는데 이내 상체가 되니 죄인이 단방(斷方)하는 것은 법도요, 익힐락 했던 얼굴도 가까이에서는 삼년이나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탈상 후로 백부님의 내침은 드물었다. 규방 부인의 몸으로도 국정의 어지러움은 조이듯이 신변을 위협하는 것을 노상 느끼고 있었는데 백부님은 집에 있는 날이 없고 어쩌다 들어오실 때는 뒤이어 사람들이 몇몇 찾아와 사랑문은 굳게 닫히곤 했다.

어렴풋이나마 짐작도 하고 어느 만큼 각오도 서있었던지, 아무리 위급할 때도 동하는 일이 없도록 무쉽게 교육을 받은 탓인지 조모님은 들이닥친 일본 현병 앞에서도 단정히 앉으신 채,

「내외가 분명한데 무례하구나.」

하고 준엄히 꾸짖으셨다고 한다. 이윽고 며느님께 부드럽게 일으셨다.

「네 남편이 출타하려는데 의관을 갖추어 주어야지.」

일본 현병들도 위압에 눌려 백부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한다.

어머님 앞에 단정히 절을 하고 일어선 백부님은 고개를 끗꼿이 든 채 대돌을 내리고 헌병이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은 끌려 가는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옥골 선비가 구종 별배를 거느리구 가는 것 같더구나.
당당했구말구.」

시어머님의 늙은 눈은 이 말을 할 때 언제나 생기를 띠고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길은 아니었다. 백부님은 사흘이 지난 밤 야심한 후 돌아오셨다. 의복이 몹시 구겨지고 때묻어 있었으나 눈은 여전히 초롱같았다. 어머니를 뵈온 후 바로 월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방에 그렇게 거리낌없이 들어간 일은 일찌기 없었으므로 백모님은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더란다.

갓을 받아 걸고 도포를 벗기는데 넓은 소매자락에서 나온 손을 보고 아내는 자즈러지고 말았다.

열 손가락의 손톱이 모조리 생으로 빼어져 손가락 끝마다에 끔찍스럽게 피가 엉겨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 잔인한 고문을 이겨내고 일단 귀가를 허락받은 그는 다음날 저녁 서둘러 집을 떠났다.

굵고 거센 삼베옷에 삿갓 쓰고 한 조각 차면포 든 상제 차림이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 헌병이 다시 들이닥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는데 그저 분하고 무섭고 끔찍했다고만 백모님은 회고하신다.

세상은 자꾸만 변해 갔다. 행세깨나 하는 집안이 모여 사는 사직암에서 몇 대를 내려 살아 온 이씨가 지붕에는 흉가풀이라고 불리는 기와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소절(士小節)에서 가르치는 대로 재주나 학문은 부덕(婦德)을 아이는 것이라고 몸을 다스려온 여인들이 성년 남자 손 없이 지내는 집이고 보니 만사가 불안하고 위태롭게만 보이던 차, 선산 시향(時享)에 참사했던 재당숙 되는 분이 종가의 쇠락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그새 열 여섯 살이 되어 있던 종가의 지차를 한성 고보에 넣어

신학문을 익히게 했다.

손수 마름을 닥달하여 수확을 챙기고 종가 사람들의 생계와 누대 봉사의 출비를 걱정없게도 해 놓았다. 한성 고보를 나온 시아버님을 동경으로 유학시킨 것도 일찍 개화했던 그의 주선이었다고 한다.

시아버님이 스물 두 살 나던 해 봄방학 때 잠시 귀국한 틈을 타서 열 여덟이 된 규수와 혼인을 시킨 것도 이 어른이 서두른 덕분이었다.

신여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이다. 많은 유학생들이 집에서 권하는 학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한 색시감을 역겨워했는데 시아버님은 풋솜에 싸서 겹상자 속에 고이 모셔 두었던 것 같은 이 심창의 구식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규수는 뛰어난 미모와 비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모님이 영주 에미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남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라 한다. 태중에서부터 아기는 일점 혈육없이 소식이 묘연한 종손 뒤를 잇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항열 따라 영주란 이름도 벌써 지어져 있었다.

아기가 힘차게 우는 것을 보며 시조모님은 감격과 기쁨에 떨린 목소리로 큰 며느님에게,

「영주 에미야. 부들어侮에게 어서 물 테우고 국밥 앓혀라 일러라.」

고 하셨다는 것이다. 남편 영주의 탄생은 이씨가로서는 실로 수십 년만의 득남이니 기막힌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백부인 양부가 집을 떠나신 후 꼭 십 년이 되는 해의 일이었다.

아기의 생모는 다음 딸을 낳을 때까지는 여전히 새댁이라고 불리웠다. 새댁은 영주가 세 살 되던 해에 딸 경주를 낳았는데 바랐던 아들이 아닌 것이 섭섭해 조모님은 오래비 젖두 넉넉히 먹지 못하게 했다고 못마땅해 하시더란다.

영주 에미의 영주에 대한 정성은 거의 전설적인 것이었다. 젖을 먹일 때 이외에는 영주는 양모품에서만 자랐는데 여름이면 배가리개만한 아이의 알몸에 안은 어른의 체온이 옮길까 염려하여

치마 앞에 유지를 대고 등이 거기 땋게 안았고 배설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소화 정도를 살피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랫것들은 기저귀 오줌물을 제대로 빼지 않는다고 기저귀 뺄래는 남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이길래 식구들 뺄래를 맡다시피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시동생 재상씨에 대한 정성도 역시 전설적인 것이었으나 어엿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섭섭했던 일이 꼭 한번 있었다고 한 일이 있다.

「글쎄 어느 해 여름이었어. 너희 시어르신네가 방학 때 돌아오시더니 일본선 양가의 딸일수록 학교에 간다면서 아주머니두 송집(송씨댁으로 출가한 작은고모님)는 소박을 맞고 본댁에 돌아와 있었다)두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겠다구 서두시지 않겠니. 그때 같이 야속했을 땐 없었다. 과부가 되었다구 이제 형수를 깔보구 학교에 넣으려는구나. 눈물이 왈칵 솟았지 뭐냐. 과부된 것두 서러운데 이젠 팔세까지 받게 됐구나. 정말 과부가 됐을 때보다 더 서럽구나.」

그래도 시아버님은 학기 초를 놓치고까지 형수님과 작은매씨를 기어이 학교에 넣으셨다. 남달리 총명한 고모님은 악착으로 공부에 매어 달렸다.

그러나 시어머님은 생각할수록 학교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시동생이 동경으로 떠나자 이내 학교를 그만두어 버렸다. 예닐곱 번이나 나갔을까? 나가도 맨 뒷자리에서 큰 몸을 웅크리고 눈을 든 일이 없었던단다. 그래서 왜글도 가르쳤건만 익힌 것은 왜글씨 「木」자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너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때두 내가 학교 간 일이 있었다는 건 입밖에 두 내지 말라구 아랫것들을 단속했지 뭐니.」

술한 문장 명필을 배출시킨 풍양 조씨댁 따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무척이나 기이했다.

그러나 구십이 넘은 오늘날까지 그의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함께 입학한 작은시누이가 한글으로 학문을 닦아 외국 유학까지 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자

신의 처사를 후회하는 기색은 추호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잘 펴지지 않는 아사 양복도 세탁소 솜씨 뺨치게 다리고 영주 경주 선주 삼남매의 뒷배도 거의 완벽하게 보아 주었다. 경주가 농구 선수로 뽑힌 것이 자랑이고 선주의 목젖이 보일 만큼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을 그의 방 벽에 붙여 놓고도 있었다. 성 악 콩쿠르에 입상했을 때 찍혔던 것인데 본인조차 부끄러워하는 사진이다.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는 신식 할머니.」

그래서가 아니지만 조카딸은 진실로 백모님을 따랐다. 그러나 신식 할머니 자신은 조금도 전과 다름이 없었다. 정수리가 훤히 빠져 나간 머리를 짹싹 빗겨 다리도 드리지 않은 술없는 쪽을 달 랑하게 바짝 치켜 짜고 두리뭉실한 허리에 언제나 중등매를 질끈 맨 모습은 짐짓 못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삼 복 중에도 솜버선 신고 비치는 적삼에는 꼭 속적삼을 받쳐 입어야 한다. 그렇다고 핫팬츠 입은 손녀딸을 나무란 일도 없다. 애써 새사람들에게 맞추려는 마음도 전연 없어 보였다. 오히려 변해 가는 세대에 저항도 느끼고 혐오도 갖고 한탄도 하는 것은 삼십여 세나 아래인 양며느리 쪽이다. 마치 어느 면 옛날 구어졌던 항아리 하나가 있어 장독간에 놓이면 장항아리요, 응접실에 놓이면 장식용 항아리가 되지만 놓인 자리 따라 모습을 바꾸는 일이 없듯이 시어머님 자신은 그대로이면서도 어디서도 어설프지가 않으셨다.

시동생 내외에 대한 정성도 극진한 것이었다.

궂은 일 험한 일은 도맡아 해주면서 언제나 고마와했다. 시동 생 내외도 지극히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4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 한 시동생은 한동안 교편을 잡다가 제지 공장을 차렸는데 태평양 전쟁이 치열해지기까지는 사업도 순조롭고 생활도 윤택한 편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거느리는 것이었으나 종가 종부 체면은 깎듯이 세워 주었다. 백모님은 누구에게나 노마님으로 불리웠고 마님

아씨 칭호가 없어진 지금도 모두가 그를 노마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노마님은 존칭이 아니고 고유명사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리라.

분수라는 것은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 분수를 고정시키고 고집스러우리만큼 고지식하게 그것을 지켰다.

자기는 뒷박이마에 불이 심술스럽고 코가 너무 큰 데다가 찍게로 찍은 것같이 관골이 몹시 죽은 못난이어서 설사 남편이 살아 있다 하더라도 소박떼기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그러저러하여 자주 아내 방에 들지 못했을 뿐 유별난 일은 없었는데 자신도 남들도 과부되기 이전에 소박떼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은 채 신화적인 미남으로 알려진 남편의 인물과 꿀로 위아래 시울을 붙인 눈을 감은 채 초례청에 섰을 때 신부 귀에까지도 들리던 구경꾼들이 신랑에게 보내는 찬탄과 신부에 대한 연민이 여태껏 바로 박지도 못하면서 너무 깊이 박혀 버린 못처럼 꽂혀 있는 것이었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수수하고 단순하고 따뜻하고 아직도 지니고 있는 천진함은 그렇게 자신을 벼림으로써 얻어진 것인지, 그것은 타고난 천성이고 그 천성이 자신을 버리면서도 자포자기나 비굴함 천덕스러움에서 멀리 할 수 있게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무래도 타고난 천성이었을 것이다.

그의 타고난 속살이 티 하나 없이 맑고 곱듯이.

늙은 양시어머니의 속살을 본 것은 몇 년 전 일이니 그분은 그때 팔십이 넘어 있었다. 무병하던 사람이 앓으면 무섭다고 그해 독감에 불들려 불덩이같이 몸이 끓는 그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보아 드린 일이 있다. 회색 저고리의 고름을 끌러 가슴을 헤치는 순간 눈앞이 화안해졌다. 박 속 같다는 말이 그대로 실감이 되는 가슴이었다. 살피듬이 좋기도 했지만 아기 낳이를 하지 않은 가슴은 젖무덤을 곱게 간직하고 몸집에 비해 너무도 작은 젖꼭지는 얇은 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노녀는 삼십 구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노출된 젖가슴이 수줍은 듯 혐한 일로 거칠어지고 세월에 매맞아 구부러지고 갈라진 처참한 손으로 자꾸만 저

고리설을 여미려 했다. 처녀살같이 고운 가슴 속살과 추악하고 처참한 그 손은 빛깔부터가 달라 같은 사람의 것같이 보이지가 않았다. 눈을 감고 있는 주름진 얼굴도 곱고 깨끗한 가슴살과 임자률 같이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재빨리 그 가슴을 덮게 하였다.

변천하는 시대와 소용돌이치는 나라 정세에 시달리고 찢기며 살아 온 풍상과 그러면서도 고이 지켜 온 것을 목격한 감동이었다.

목숨보다도 아끼던 양자를 잃고 생모가 오히려 위로하는 입장에 서야 할 만큼 그의 비탄은 컸다.

1·4후퇴 때도 그는 피난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더 연기 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다급해졌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갔다. 마지막 이별이었거니 하며 비통해 했는데 그는 식구들이 피난길을 떠난 후 돌아와서 집을 지켰다.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찌 집을 비우느냐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피난에서 돌아와서도 얼마를 허탈 상태에 있던 시아버님은 결혼 후 집에만 있었던 며느리를 다시 병원에 나가게 하고 국민 학교 2학년이 되는 큰손자 용익의 책상을 자기 방으로 옮겼다.

아이들이 사람에 따라 우수에 잠겼던 집안 분위기는 약간 달라졌지만 식구들이 모두 젊은 며느리를 아픈 데 다루듯 하는 것이 때로는 몹시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심정을 새까맣게 먹칠해 버리고 희망의 마지막 실오라기마저 끊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죽었어 죽었다. 잊어버려——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임종도 못 지키고 시신도 보지 못한 아내가 어찌 과부라고 불리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과부라는 말이 이 집에서 처음 터져 나온 후부터 그것을 계기로나 한 것처럼 혼자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정확히 말하여 시아버님이 돌아간 후부터다. 사랑과

안채 사이 벽 일부분을 터서 왕래를 쉽게 하고 그 사랑채에 병원을 차려 주신 것은 돌아가기 전 해 일이다.

큰사랑 한가운데를 커튼으로 막아 진찰실과 처치실로 쓰고 사랑마루에 응접셋트를 놓고 대합실을 만들었다. 작은 사랑에는 침대와 책장 책상 약장 등을 꽉차게 들여놓고 약국도 침실도 아닌 잡탕방으로 쓰게 했다.

시아버님 당신은 안방으로 합솔한 후 자주 병석에 눕게 되더니 일년도 채 못 지나 세상을 떠나셨다.

「아유 동튀가 난 거예요. 오래 된 집 벽 같은 것 허는 것 아니래요.」

평산댁이 펼펼 뛰었지만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짚은 품으로 혼자 사는 며느리가 조심스러웠던 까닭이리라.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은 병원집 폐과부집이란 이름으로 이 집을 부른단다.

그리기도 할 것이 팔십이 넘은 노인 과수, 육십문턱에 와 있는 중노인 과수댁, 사십도 안 되는 짚은 과부에 일하는 아줌마 평산댁마저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신랑이 징용으로 끌려가 소식이 없단다.

그녀 역시 기다리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한구석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남았을 것이니 과부인 것을 확정지어진 사람은 생시어머님 한 분이지만 남보기에는 각 연령층의 네 과부가 폐지어 살고 있는 집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모두는 서로 아끼고 잘 어울려 살았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여 서로의 사이에 벽을 쌓다가 헤웠다가 했다.

대주 없는 집에는 여편네 말굽이 훤다더니 시아버님 작고하신 후부터는 주로 혼자된 아낙들이 모여 들어 때아닌 웃도 놀고 화투도 치고 잡담도 했다. 모두 집안이 아니면 인척으로 얹히는 사이들이라 상당히 점잖은 집 부인네들인 만큼 범절 법도 다 차리고 의젓한 사람들이었으나 여럿이 모여 오래 함께 어울릴라 치면 범절 법도 다 날아갈 때도 있었다.

아득한 날 민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괴기담에나 나올 것 같

은 옛법도와 일종의 사형(私刑)인 그 다스림, 시집살이의 고달픔에 시앗 본 쓰라림, 아슬아슬한 말도 곧잘 섞였다.

대개가 과부들이니만큼 과부의 서러움과 어려움, 외로움과 야속함을 번갈아 가며 나누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보면 첩 얻고 본맥네 죽도록 학대한 남편도 처음부터 아내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꼭 누군가의 농간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것이 되는 것이었다. 말동서는 반시앗이라고 깁고 밉살스럽긴 시앗 못지않게, 시누이는 살쾡이라 눈에 뜨이지 않게 있어야 하며, 앙콤한 아랫동서에 속주었다간 속빼먹히며, 아랫것이라고 마음 놓았다가는 발등에 불똥 떨어진다고 웃고, 맞아 맞아 맞장구도 쳤다.

스라소니 영감과 맷고 끓은 듯 만사에 분명한 똑똑한 부인, 돈으로 벼슬 산 명텅구리 사또와 닳고 닳은 교활한 아전, 수절 과부의 뒷이야기에서 효자 호부의 믿어지지 않는 정성과 희생과 봉사에 숙연해졌다가 방귀 못 뀌어 얼굴에 노란꽃이 핀 며느리의 딱한 사정 이야기가 나오고 좀 도가 넘칠 땐 방귀타령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 방귀는 호령 방귀, 시어머니 방귀는 유세방귀, 신랑 방귀는 출랑 방귀, 시동생 방귀는 심술 방귀, 큰시뉘방귀는 고자질 방귀, 작은시뉘방귀는 연지 방귀——

박장대소가 더지곤 하지만 그래도 사대부집 아낙들이라 음담패설도 그만으로 끝났다. 모두 가엾은 과수댁들이라 환자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어느 비 오는 날 모인 자리에서는 비탓도 있겠지만 너무나 추연한 이야기들만 나왔었다.

「몽달 귀신 손각시 귀신만 무섭구 처량한가. 짹잃은 외기러기 두 살아 있는 귀신이라우.」

유복자 홀로 길러 여위었더니 며느리가 너무 못되 방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 곁돌고 있는 원남동 할머니가 한숨처럼 토해 낸 말이었다. 화투짝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평택 할머니가,

「또 며느리가 암상을 부립디까.」

「언제 개가 암상 부렸나.」

원남동 할머니는 언제나 며느리를 싸준다. 며느리 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처지를 더 비참하게 하기가 싫어선지도 모

르지만.

「역성들 것 없어요. 누가 모를까 봐. 그래 자식도 품속에 있을 때라지 않우. 며느리 못 봐 그렇게 성화더니. 쫓쫓……」

평택 할머니가 혀를 찬다.

「정말입지요. 아드님이 너무 늦장두 부리셨지만 며느님 타령 어지간히 허셨죠 며.」

평산댁이 끼어들었다. 원남동 할머니 아들은 생활 기반이 잡힐 때까지 결혼을 않겠다 하여 할머니는 쥐며느리 별례만 보아도,

「아이구 쥐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고 안타까워 했었다.

성화 성화 서두른 혼인이었었는데 며느리는 쌀쌀하고 홀시어머니를 냉대했다. 나이 들면 좀 나으려니 했었는데 점점 더 기승스러워지고 얼마 전부터는 겨우 국민 학교 1학년과 3학년짜리 아이들에게 각방으로 공부방을 내주어야겠다고 야단을 하는 바람에 쓰던 방을 내주니 남은 방이란 허드레 허접쓰레기를 쳐 싸놓은 헛간 같은 방밖에 없어 바퀴와 쥐며느리 그리마 같은 별레와 함께 허접쓰레기 틈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럽기도 하고 남의 눈에 부끄럽기도 하여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제발로 기어들어가기도 쑥스럽고 겸연쩍어 할머니는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

「그래두 쥐며느리는 사람며느리보다 난 가 봐. 사람며느린 함께 있기 싫어하지만 맥방에는 쥐며느리 두 많습니다. 사람며느리 대신 효도 극진히 합디까.」

평택 할머니의 말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물론 원남동 할머니에게 유감이 있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남의 일이지만 그 집 며느리가 너무나 꽤씸해 의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전드린 원남동 할머니의 상처는 너무나 아파 온다. 설불리 한마디 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뉘우치고 입다물고 만다.

평택 할머니도 머쓱해 한다. 공연히 할퀴고 싶어지는 것 두 명이라니깐——마음으로 놔이고,

「아, 동래 정씨 모르우? 삼정승 팔판서가 당내에서 났다지 않우. 삼한 감족 잠영대가지. 근데 왜 그 집안이 그렇게 융성했는지 알우. 그것 모두 적선현 공이라우. 손각시 귀신될 뻔한 불쌍한 청상 따님이 구해 준 음덕이지.」

옛날 어느 때 정씨가 따님이 합례도 하기 전에 새서방이 급사를 했단다. 색시 나이 겨우 열 한 살, 첫 근친와서 눌러앉아 있는 동안의 날벼락이었다.

비탄에 싸인 부모는 따님을 불렀다. 상스럽지 않은 분위기에 첨을 먹고 있는 새애기씨 머리를 유모가 풀었다. 영문을 모르고 눈을 크게 뜯어 어린 딸을 보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침통하게 일렀다.

「동쪽 보구 사배(四拜)하고 곡(哭)하여라.」

시댁은 동쪽에 있었지만 인형 같은 새애기씨는 방향조차 몰랐다.

「사배는 왜요? 곡이 뭘까요?」

평생 동안 우는 일이 없는 아버지는 그만 방바닥을 치며 방성 통곡을 했다. 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과부가 되다니——

열 한 살 애처로운 청상과부는 부모들의 비탄을 보고 영문을 모르면서 서럽게 서럽게 따라 울었단다.

나이 어린 동안은 친정 후원에서 출가 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날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월은 속절없어 어이없이 청상 소리를 듣고 있던 어린 과부는 스무 살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후원을 몸소 살피며 돌던 늙은 아버지는 어느 날 후원 딸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낮은 음성을 들었다. 아버지는 문앞에 바짝 다가서서 온몸으로 귀가 되었다. 들리는 말은 망측하게도 남녀가 주고받는 밀어(密語)가 아닌가. 그는 발짝 소리를 죽여 사랑으로 돌아갔다. 다시 되돌아나온 그의 손에는 서리같이 날이 선 비수가 들려 있었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지 독하게 먹고——이를 악 물며 문을 열어 제쳤던 그 앞에 벌어진 광경은——

「아 글쎄 베개에 남복을 입혀 원앙침에 뉘이구 혼자서 말을 주구받구 하구 있었다지 뭐예요.」

근엄한 아버지는 이 애처로운 딸 때문에 뜨거운 남자의 눈물을 또 한번 흘려야 했다. 며칠을 앓고 난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이슥해서 무쇠를 불렀다.

몇 해 전 흥년에 흘러들어와 그대로 그 댁의 아랫사람이 된 우직하고 성실하며 잘생긴 젊은이었다.

이튿날 정씨댁에서는 곡성이 어지러웠다. 간밤에 후원에 흥한이 들어 작은아씨를 육비려 했는데 나이는 어리다 해도 수절과부는 몸에 지녔던 은장도로 목을 찍어 자문하여 몸을 지켰다 하니 발상(發喪)과 동시에 열녀 났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죽을 죄를 진 흥한은 누구냐고 동네가 들고 나는데 무쇠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알고 천인공노의 극악무도인을 관민이 다 찾아나섰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 후부터 정씨가에는 경사만 겹쳐 일어났다. 열녀의 단심을 옥황상제가 가상히 여기신 것이라고들 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정씨가의 경사는 끊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비 한 사람이 금강산 구경을 갔다 오는 길에 길을 잊어 산중을 헤매다가 한 언덕 밑에 집 한 채를 발견하고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다.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와 산골에서는 보기드문 요요한 아내와 세 아들에 고명딸이 식구였는데 여자는 고운 경사(京辭)를 써서 한양이 고향이냐고 물었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전읍(奠邑)에서 왔습니다.」

하더란다. 선비는 전읍이 어디냐고 묻고 싶었으나 여인의 태도로 미루어 다시 묻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전읍은 정나라 정(鄭)자를 풀어 말한 것이니 정씨가의 열녀가 환생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들 하였다. 선비의 눈에 비친 그 산중 언저리가 마치 선경으로 보였다는 말이 그들에게 그런 연상을 시켰던 것이다.

「그런 얘기지만 그럼 우린 뭐지. 새서방이란 걸 아무리 생각해 낼래 두 손자 같은 초립동이의 애면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는걸.

그리구 긴긴 세월 수절했다구 고맙다 기특하다 하며 날 맞아줄 것 같아. 귀신 같은 노파 왔다구 기절해 버리게.」

이렇게 평택 할머니는 자기가 한 이야기에 곤잘 자기가 채를 뿌린다. 두 분 시어머님은 언제나 말없이 듣고만 계셨었다.

「허지만 그런 쳐사해 주는 부모님이 어디 그리 흔한가. 이건 옛얘기가 아니구 우리 당고모님 말씀인데 갓서른에 혼자 되셨다 우. 혼히 스물 안 과부는 서두 서른 과부는 서지 못한다구 하잖 우. 잠자리가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우. 그래서 망측한 생각을 떨쳐 버리려구 대구 일만 했다나. 그러던 어느 날 자즈러지게 다리미질을 허구 있는데 마당 아범이 비를 들구 안뜰을 쓸려구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래. 그런데 갑자기 몸이 확 달아오르구 사지가 꼬이드라지 뭐유. 그야말루 기절을 할 만큼 그 비부(婢夫)가 옥골선비루 보이더라는 거야. 저두 모르게 그 가슴 속에 뛰어들 뻔했대. 미쳤지 머. 앞이 캄캄허구 입에선 단내가 나구 미슥미슥 해 오는 것을 억지루 눌렀더라우. 아아, 내가 왜 이래 하느님 부처님 어머니 어쩜 좋아요. 그런데 아범은 또 아씨께 인사 드린답 시구 뜰 아래까지 와서 이를 드러내며 굽신하더라나. 당고모님은 찔찔매다가 잡히는 대로 다디밋돌 밑에서 송곳을 꺼냈더라는 거야. 원 송곳이 왜 하필 다디밋돌 밑에 있었는지. 그걸 바로 쥐구 정신없이 허벅지를 내리 찔렀대요. 시커먼 독피가 마구 솟아 뿐더래. 그만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구 그 노비두 뜰 아래에 염려스러운 얼굴루 서 있더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부라는 것이 천하의 코찡찡이 못난이에다 흉칙한 빠뽀였다지 않아.」

평택 할머니는 말을 끊고,

「내 나이타(라이터) 어디 갔지. 손녀딸이 첫 월급 탔다구 사준 건데.」

하며 치마 밑을 더듬는다. 반쯤 피우다 비벼껴 둔 반 토막 담배에 불을 당겨 한 모금 깊숙히 들이 빤다.

「사람에겐 말이유. 과부뿐만이 아니구 모두 고비가 있는 거라

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말이야,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지 머. 더구나 젊어서 혼자된 아낙은 말야.」

그는 이쪽에 뜻이 깃든 눈길을 널지시 보내고,
「언제나 마음 속에 송곳을 가지구 있어야 하는 거야.」
하고 불이 잘 당겨져 있지 않은 반동강 담배 끝을 빽빽 뺏아들였
었다.

이 송곳 이야기는 너무 원색적이고 망측스러운 생각이 들어 뒷
맛이 좋지 못했다. 또 실감도 그리 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철저
한 유교 교육으로 거의 목석화되어 있던 옛 여인 속에서도 그런
정염이, 다분히 음의(淫猥)한 그런 피가 끓고 타고 있었던가 오히려
기이하고 불결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식히지 못한 뜨거운 피를 송곳으로 다
스려야 했던 그 가엾은 여인도, 그 사연을 전하던 평택 할머니도
사람 며느리한테 구박받아 습습한 혀간 방에서 쥐며느리라는 이
름을 가진 불결한 별래와 살아야 했던 원남동 할머니도 마음도
모습도 언제나 새댁같이 곱던 생시어머님도 가 버린 지금, 처음
들을 때부터 망칙스럽던 송곳 이야기가 왜 불쑥 의식 표면에 솟
아올라 왔을까?

요즘 와서 버릇이 되어 버린 아득하고 적막한 심정에 또 사로
잡히며 멀건히 열어제낀 문 밖으로 눈을 준다. 담 옆 대추나무 잎
사귀 색깔이 좀 전보다 약간 더 짙어 보인다. 동글동글 쫀쫀한
앵두나뭇잎도 연연한 녹색이며 그 아래 옥잠화 칠칠한 잎사귀는
옥비녀 꼽지 같은 꽃봉오리를 품고 있다.

역시 눈이 찢기우는 것 같은 녹색이다.

그 녹색 속에 녹색 꽃무늬 흰 원피스를 입은 숙희의 청초한 얼
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찰나 들을 적부터 역겨웠던 그 송곳 이
야기가 왜 갑자기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 숙희는 올해 스물 아홉, 지금도 믿기 쉽고 믿어지지도
않을 만큼 아프고 아픈 일이지만 스물 다섯 되던 해 초여름, 그
의 남편 용익, 내 아들 용익은 문산 북방 일선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있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 입대하여 군복무가 끝나가는 무렵이었다.

보름 후면 제대를 하게 되고 제대하면 여름이 가기 전에 도미하여 9월부터는 텍사스 대학 의대 부속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어 있었다.

양친이 다 건강하게 생겨서인지 용익은 체격이 크고 늠름했으나 심장이 약간 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용익이 복무하고 있는 곳은 최전방이었지만 민간인의 방문이 많았다. 북에서 파고 들어온 그 유명한 터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마때도 아닌데 궂은 비가 며칠 계속하고도 개운치 않은 날이었다. 용익은 비로 며칠 뜨음했던 견학의 일단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터널 입구 앞에 서 있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 그 견학단의 일원으로 오겠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익은 터널에 몇번이나 들어간 일이 있었다. 대개의 경우 그때처럼 친척이나 친지가 견학단에 끼여 찾아올 때다. 그러므로 훌륭한 안내인일 수도 있었다. 처음 들어가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공포는 이제 퇴색되어 아는 사람 따라 같은 곳을 오르내리기도 성가셨다. 더구나 그날은 간밤에 송별회 비슷한 모임이 있어 권하는 대로 마신 소주가 채 깨지 않은 상태였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날 찾아간 친구는 정말 반가웠다.

그는 헬멧도 쓰지 않고 바닥이 오싹오싹한 느낌을 주는 습습하고 고르지 못한 터널을 앞장서 내려 가면서 언제나처럼 쾌활하더란다.

「귀순 기사의 말로 터널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가 입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은 설계자의 한 사람이었다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지점에서 굉장히 물줄기가 터져 하늘에 솟아올랐어. 터널에 차 있던 가스가 수압을 급격히 강력하게 높였던 거지.」

「가스가? 그럼 좀 위험하겠구나 이 터널.」
친구가 말했다.

「염려할 건 없어. 배수나 배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일년에 한두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구. 여긴 지하 75킬로 밀이구 습기와 지열은 항상 가스를 발생시키거든.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쯤해서 되돌아나가는 것이 좋지.」

그러던 그가 그 말을 한지 10분도 못 되어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친구는 그가 발을 협디던 줄 알았단다.

「자주 들어 왔다면서 미끄러지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앞에서 그는 70킬로가 넘는 체중에 끌려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였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저 꿈속만 같다. 상처투성이의 몸을 위태롭게 나마 버티어 주던 등뼈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무력감 속에서 무중력 지대를 가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내왔다. 모든 것이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무엇에든 의지를 동원시키는 일이 없어졌다.

병원도 역시 의학을 전공한 딸 용선이 맡은 지 이삼 년이 되었다.

숙희는 남편이 죽은 다음달에 유복자 정현을 낳고 별 하는 일 없이 결혼 때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일 주일에 두어 번은 꼭 찾아온다. 그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 궁리만 하면서 달과 해를 보내 왔는데 우연히도 그녀를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서 본 것이다.

자식이 두 번 죽는 것으로 보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녀의 인생을 위하여 이쪽에서 서둘러 좋은 배필을 구해 주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막상 맞닥뜨려지고 보니 눈앞이 샛노래져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숙희, 내 아들의 아내였던 숙희, 영원히 내 아들의 아내여야 할 숙희, 내 아들의 아내로서 결령한 남편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숙희, 당당하고 고상하고 유능하고

—그러면서 내 아들의 모습을 지워 버리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는 남자만을 남편으로 택해야 하는 숙희, 너는 무엇에 지금 씌어 있는 거야. 네 앞의 그 남자의 정체를 봐야 해. 여기여기 송곳이 있어. 이 송곳으로 허벅지를 내리찍으란 말야. 자 어서. 그러구 그 독혈을 쏟아 버리구 맑은 정신으로 눈을 씻구 봐야 해——

그 의식의 심층 조명 없는 무대 위에 서서 소리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허벅지에 격통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물리적인 아픔이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찍어야 하는 것은 이쪽이 아닌가고 느낀 순간의 일이었다.

한 줄기 눈물이 감은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어머님의 조용한 발소리가 대청을 건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곡기를 좀 해야지, 녹두죽이라두 쑤랄까.」

노인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다. 며느리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응석이 섞인 어조로,

「그것보다두 말씀이에요. 어머님 이제 생각하니 제 송곳은 의무감과 허영심이었어요. 아이들을 길러 내구 훌륭한 어머니란 말을 듣구.」

노인은 의혹과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이미 육십을 넘은 며느리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어머님의 송곳은 그 험한 일에 거칠어진 손이셨지요? 허벅지를 찍는 대신 그 고운 가슴을 가리신——」

「얘야!」

노인은 절규하고 며느리의 몸을 아무에게도 뺏길 수는 없다는 듯 힘껏 싸안았다. 더욱고 큰소리로 평산댁을 불렀다.

「평산댁, 평산댁, 병원에 나가 빨리 원장 들어오라하구 박박사댁에도 빨리 전화를——」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에는 일찌기 몰랐던 평화와 안온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